

## 王陽明의 理想的 國家論(一)

저자미상

本論은 雜誌『日本及 日本人』에 掲載된 桑原某의 執筆에 □한 것인데 參考함에 足한 점이 多하기로 此를 譯出連載하노라. 一記者

(一)

人生의 事爲……이것은 學理로부터 觀하던지 實際로부터 疑하던지 根本問題는 最高價値의 發揮에 있도다. 此를 古代的으로 言하면 人間은 如何히 하면 聖人이 되며, 此世를 如何히 하면 大國化하고 淨土化할까하는 것이요. 此를 近代的으로 言하면 人格은 如何히 完成하며 生活은 如何히 理想化할까하는 점에 歸하는도다. 古代東西의 思想 文明史와 及 此間에 出沒□現하던 幾千百의 聖賢哲人으로 稱하던 그들의 說훈바와 論훈것의 □點은 畢竟如何히 하여야 此世界를 理想□에 □하며 此人類를 道德化할까 하는 점에 在하도다. 人類는 舉皆良心을 有하며 理性을 有하나니. 如何한 勢力과 如何한 權威가 잇슬지라도 人間으로부터 此良心과 此理性은 奪치 못하는 것이로다. 古往今來의 歷史上에서 見하는 □□의 事實과 茂多 悲劇的 事變은 반다시 一部の 野心家와 少數의 權力者가 人間의 良心과 理性을 無視하고 非人道的인 行動을 演하는 곳에 禍源이 發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茲에서 云하는 聖賢의 學이란 것은 如何히 하면 此禍源을 根滅하여 人類에게 永遠의 平和를 □할까 함에 存하며 聖賢의 生涯는 此理想實現의 努力한 □晶에 不外하도다. 그러나 全人類와 全世界의 救濟는 其 事가 容易치 아니함으로 世界人類의 救濟는 반다시 먼저 그 國家, 그 國民의 救濟로부터 出發하나니. 茲에 國家의 理想化하는 主張과 내지 運動이 古代로 부터 夙起하얏도다. 希臘에는 『푸라트』가 있었으며 『아리스토틔』 등이 有하나 共히 彼 『쇼크라테스』의 學을 繼承하며 擴充하여 理想的 國家의 主張에 努하얏나니. 그 內容을 細檢하면 尙히 甚히 不備 此幼稚한 點이 不無하나 그러나 左右間道德的 理想王國의 建設에 對하여 世界의 先驅가 된 點은 大

히 推獎함에 值하고 近世에 入하여 獨逸의 『칸트』 『후이히데』 『헤겔』 等은 모다 國家를 理想化함에 各自 獨特의 說이 有함바, 就中 『후』 씨의 文化 國家와 如한 것은 道德的으로 觀察하기 興味가 頗深한 것이 有하며 更히 最近에 至하여 『□□』 等 一派의 倫理的 國家說이 有하였도다. 今에 獨逸은 戰敗國으로 悲慘한 境遇에 在하고 國債도 帝政으로부터 變하여 共和國이 되었스나 此 國에 現한 學者와 思想家의 代表的 人物은 殆히 모다 『칸트』 와 『후이히데』 의 餘流를 汲하며 乃至 그 傾向을 帶하여 人生觀에 一般으로 理想的, 道德的, 色滯를 □하였도다. 『니치에』 와 『드라이첵케』 等の 英雄萬能乃至 權力萬能의 思想은 □□□□□□의 野心家를 □케 하여 遂히 世世咀呪의 的이 되고 亡國의 □□에 陷케 하였으나 □에 此 國에 生한 □□의 學者, 思想家是 永久히 世界文明의 異彩가 될 것이 多 하도다.

近代에 至하여 歐洲各國에는 所謂 經濟□에의 聲이 激盛하고 第四□의 解放運動이 一日은 一日보다 一年은 一年보다 激烈하여 巨浪과 如하며 洪□와 如히 興□하며 그 傾向은 世界의 前途와 各國의 文物制度에 對하여 年一年으로 何等의 變動을 興치 아니하면 止치 아니하려하고 茲에 國家의 事와 人生의 事가 □□□道德을 □하여 經濟問題에 移하려 하는도다. 今에 世人의 言을 聞하면 一은 曰 『今은 迂遠한 理想談에 □흘러가아니라』 하며 二도 曰 『문저 面上焦眉의 生活問題를 解決아니하면 不可라』 하며 三은 曰 『生活을 置하여 國家人生에 何物이 有함가』 力叫하는도다. 『民은 飢하며 □□되나니 此에서 平等의 食과 平等의 待遇를 與하여 人間으로 平等의 生活을 遂케하라. 그리하여 平等生活을 沮害하는 妨碍物을 撤廢하라』 하는 叫聲이 全世를 震撼하는도다. 즉 □□과 如하며 □□과 如히 猛進絶叫하는 것이 今日 經濟問題를 中心으로 하는 現代人間의 生活光景이로다. 아-그러면 人類의 理想은 何으로 써 滿足하려고 하는가.